

장애인문학의 가치와 역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숫대문학>100호 기록은 그 어떤 찬사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결과입니다. 숫대문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학을 표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선물한지 25년 동안, 단 한 번의 결간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컸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숫대문학은 수많은 장애인들을 작가로 키웠고 그들의 작품은 장애인문학이라는 큰 강을 만들어 목마른 장애인들에게 목을 축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유유히 흐르며 더 큰 바다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숫대문학의 진가가 드러나겠지만 이미 숫대문학은 빛나고 있습니다.

숫대문학에서 보내준 장애인문학 대표시를 읽으며 마음의 울림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가 이토록 감동적인 것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인들 모두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시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과 사랑, 거기에 깨달음까지 있어서 사람을 겸손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가 장애를 가진 시인이라는 선입견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다니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평등하지 않아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기쁨까지 주는 매우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록 지원해야 합니다.

고맙게도 숫대문학을 창간해서 25년 동안 이끌어온 방귀희 발행인은 이러한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헌신적으로 알려왔습니다.

2011년 불자대상을 수상하여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보살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방귀희 발행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언제나 사회의 밝고 어두운 곳곳에서 당당한 활동을 통해 사회 지도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불국토가 될 것이란 기대를 전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거듭 숫대문학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천여 명의 회원님들,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좋은 작품을 나누어 주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세상을 맑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숫대문학은 여기에 편견으로부터 장애인을 지키는 힘까지 보태졌기에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숫대문학 100호로 종이책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쉽지만 숫대문학 전자북으로 더 자유롭게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만나서 장애인문학의 가치와 역할이 우리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